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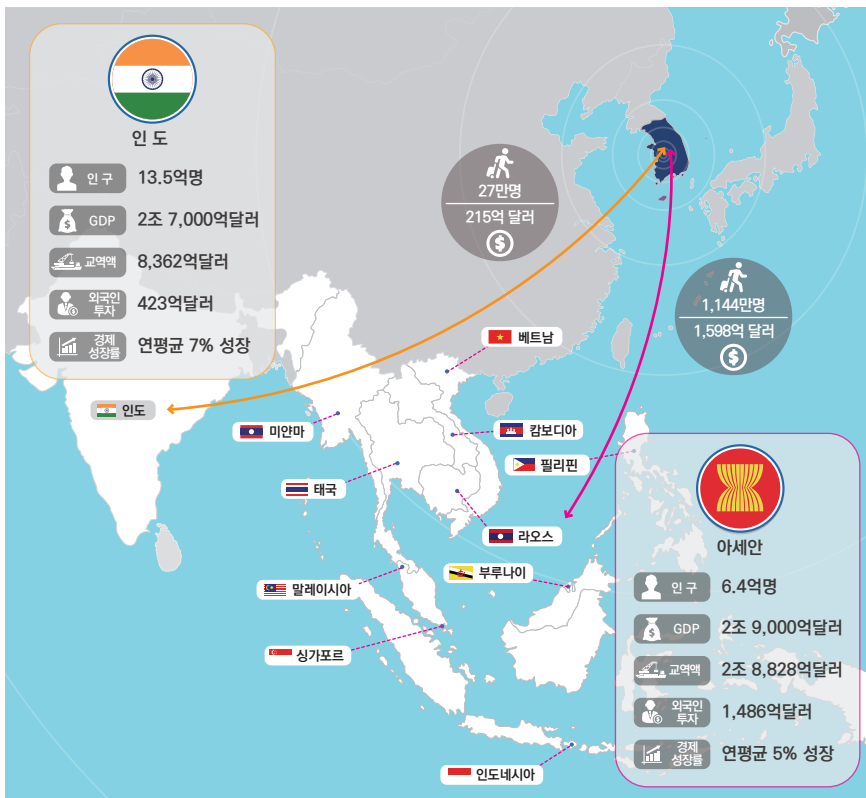
물류 경쟁력 강화, 신남방정책 성공의 열쇠

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의 제 2의 교역국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반하여 글로벌 성장과 교역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. 우리나라 해운·항만·국제 물류 기업의 아세안·인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, 화주의 글로벌 공급사슬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 지원, 역량 제고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. 이에 기업은 자체 역량 강화와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우리나라 경제 신성장동력, 아세안·인도가 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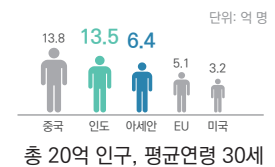
•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,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투자 대상지

- 한·아세안, 한·인도의 교역량은 각각 1,598억 달러(2018년), 215억 달러(2018년)이며 제2, 제11의 교역대상임
- 2018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호방문객은 1,144만명, 인도와는 27만명으로 경제와 문화, 역사를 교류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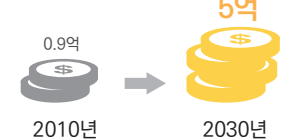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, WTO, UNTAD,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

절고 역동적인 성장지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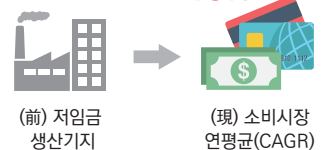
중산층 인구 지속 증가

아세안 중산층 소비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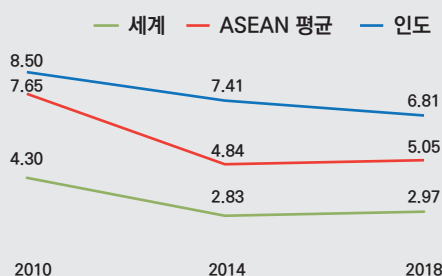
소비시장·FD시장으로 변화

시장변화



• 신남방 국가*의 GDP 성장률 평균 5.93%

- 세계평균 GDP 성장률 2.97% 대비 1.9배 높은 수준



*신남방 국가: ASEAN10개국, 인도

자료: World Bank data, <https://data.worldbank.org>

• 신남방 국가의 '10~'18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5.02%

- 세계평균 4.45% 보다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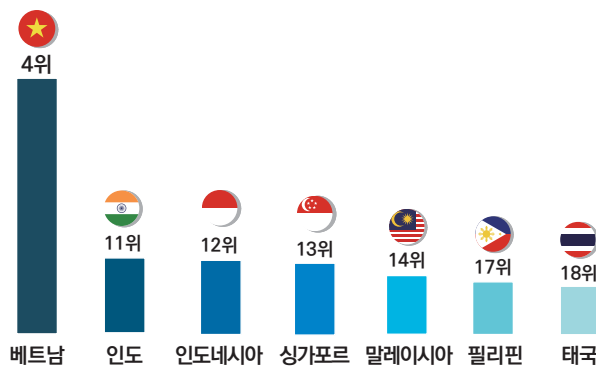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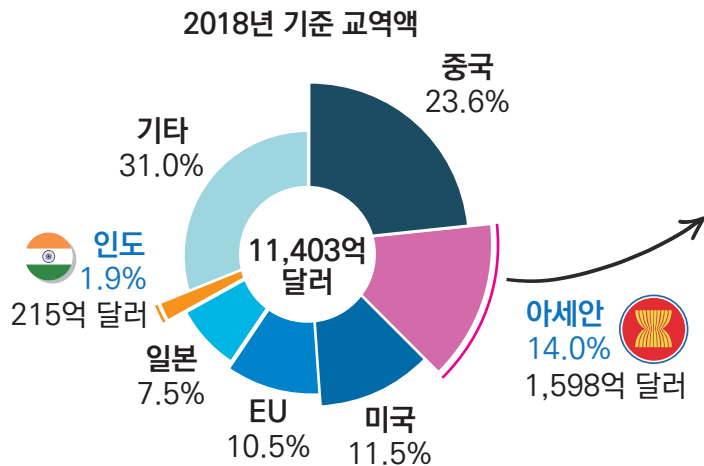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UNCTAD Stat

아세안 우리나라 제2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

- 2018년 기준, 중국 23.6%, 아세안이 14.0% 차지

- 우리나라 20대 교역상대국에 아세안 6개국과 인도 등 신흥방 7개국이 포함
- 아세안 내 1위 교역 상대국 베트남, 42.7%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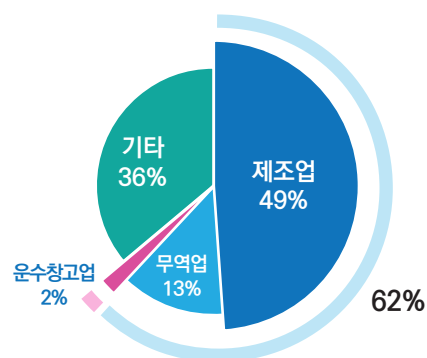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무역협회(K-stat)

동남아 진출 우리 기업 중 해운물류기업은 저조한 편

- 제조 및 무역업종 62%를 차지, 물류업(운수창고업)의 경우 2%(331개)에 불과
- 특히 331개 물류 부문 해외법인 중 해외 물류 거점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(창고업 대상)은 30개로 전체의 0.2%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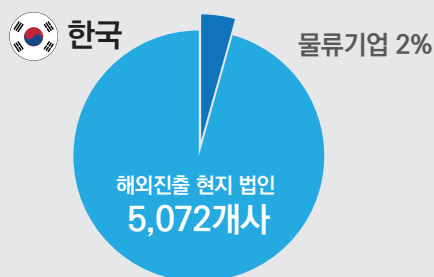
* 우리나라 기업의 동남아 국가 해외투자 규모(법인, 지사)는 18년 9월 누적 총 14,369개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KMI 재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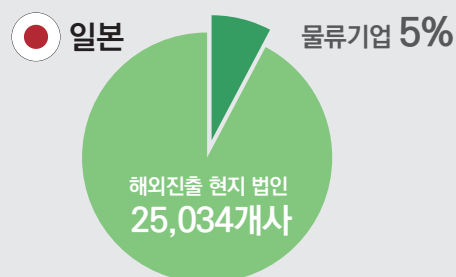


• 한국과 일본의 해외진출 물류기업 진출 비율

- 2018년 기준, 우리나라 해외진출 현지 법인 5,072개사 중 물류기업은 99개사로 전체 법인 대비 2% 수준



- 2017년 기준, 일본 해외진출 현지 법인 25,034개사 중 물류기업은 1,341개사로 전체 법인 대비 5.4%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 2.7배가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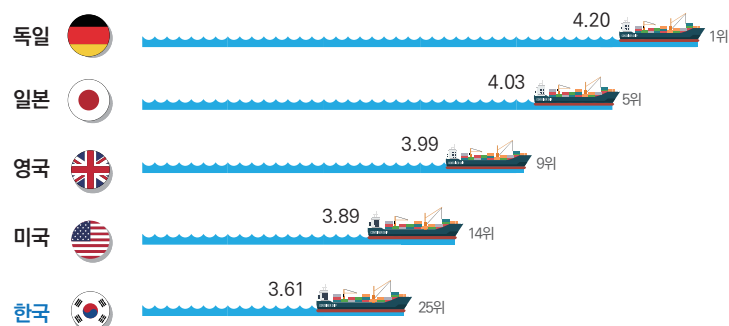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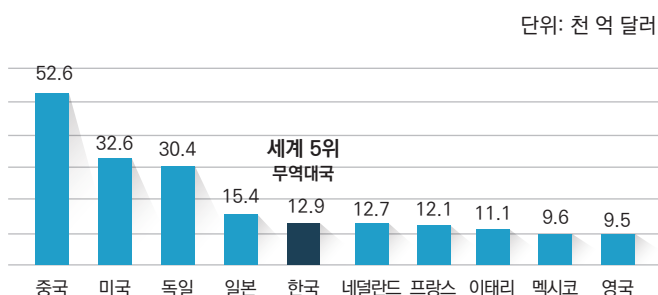


2.7배

자료: (좌) 한국수출입은행,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(2019.12), (우) 일본, 경제산업성, 해외사업활동 기본조사

• 2018년 기준,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임에도 물류성과지수(LPI)는 세계 25위 수준

-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물류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서비스 역량 저하로 이어지므로 해외 진출 필요성이 강조



주: 수출입 합계

자료: IMF DATA,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(DOT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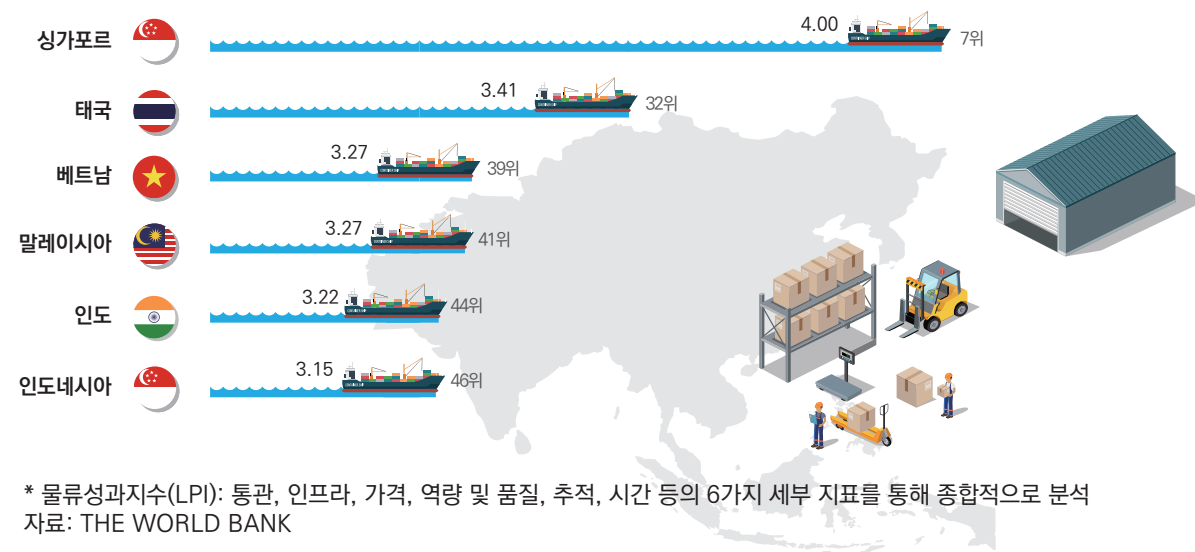
주: 2018년 기준, 물류성과지수(LPI)

자료: THE WORLD BANK

• 전반적으로 물류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동남아

-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물류성과지수(LPI)에 따르면, 싱가포르(7위), 태국(32위), 베트남(39위)를 제외한 국가들은 40위 이하로 물류인프라, 연결망 등 전반적인 물류여건이 미성숙 단계

* 말레이시아(41위), 인도(44위), 인도네시아(46위), 필리핀(60위), 브루나이(80위), 라오스(82위), 캄보디아(98위), 미얀마(137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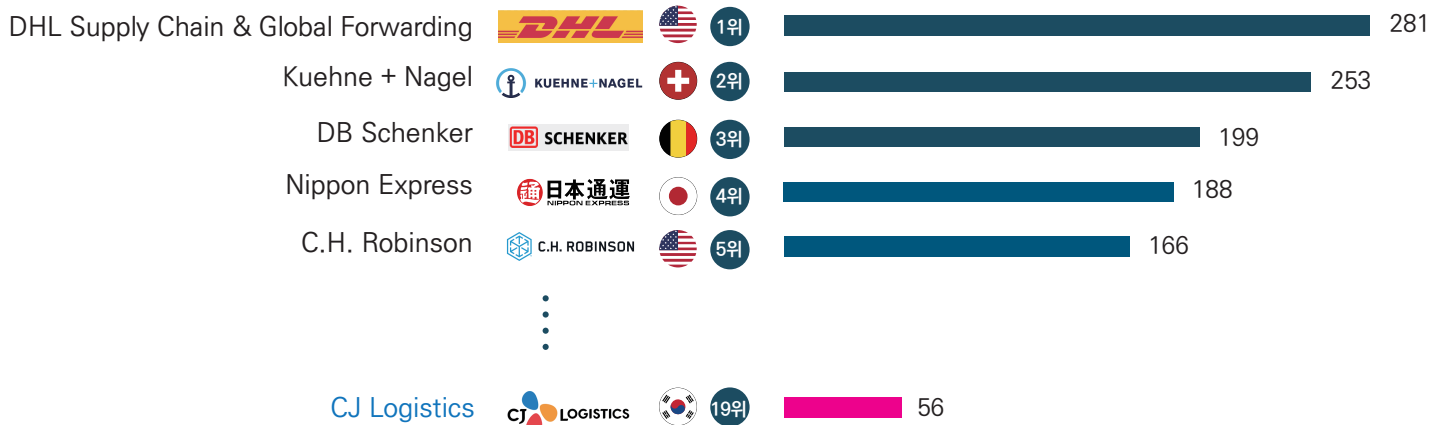
* 물류성과지수(LPI): 통관, 인프라, 가격, 역량 및 품질, 추적, 시간 등의 6가지 세부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
자료: THE WORLD BANK

• 우리나라 최대 종합 물류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는 ‘중견기업’ 수준

- 2018년 기준, 글로벌 제3자 물류기업 매출액 순위는 DHL(1위)이 281억 달러, 우리나라 기업인 CJ Logistics(19위)는 56억 달러로 1위 기업의 1/5수준

글로벌 제3자 물류기업 매출액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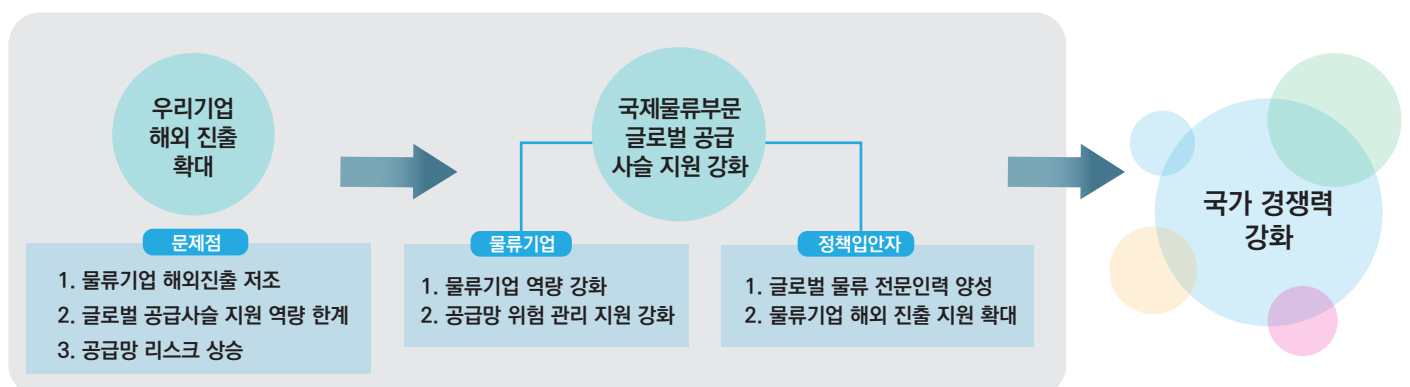
단위: 억 달러



자료: Armstrong & Associates, “A&A’s Top 50 Global Third-Party Logistics Providers (3PLs) List”, 2019.10.9, KMI 재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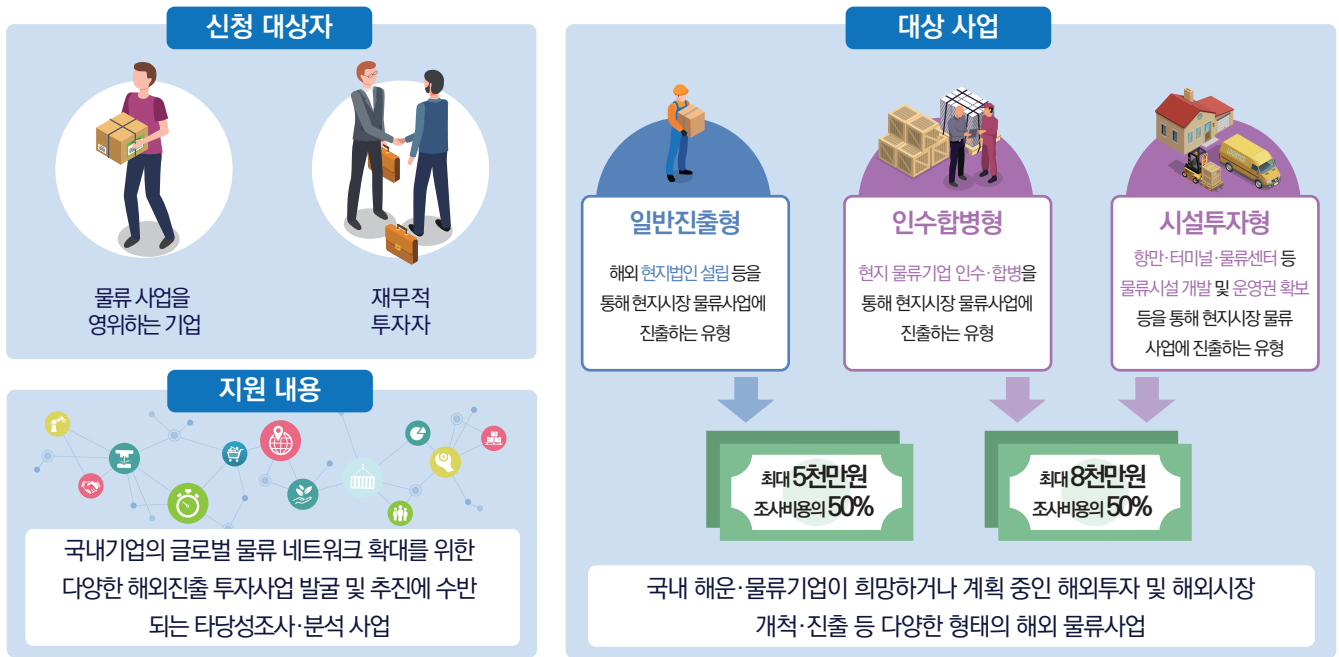
•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부문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

- 물류기업은 국제화 역량 및 외부 환경 변화(자연재해, 무역분쟁, 전염병 등)에 대응한 화주의 공급망 위험관리 지원 전략 마련 필요
- 정부는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확대, 글로벌 물류 전문인력 양성, 재난시 긴급 지원 대책 등 글로벌 공급사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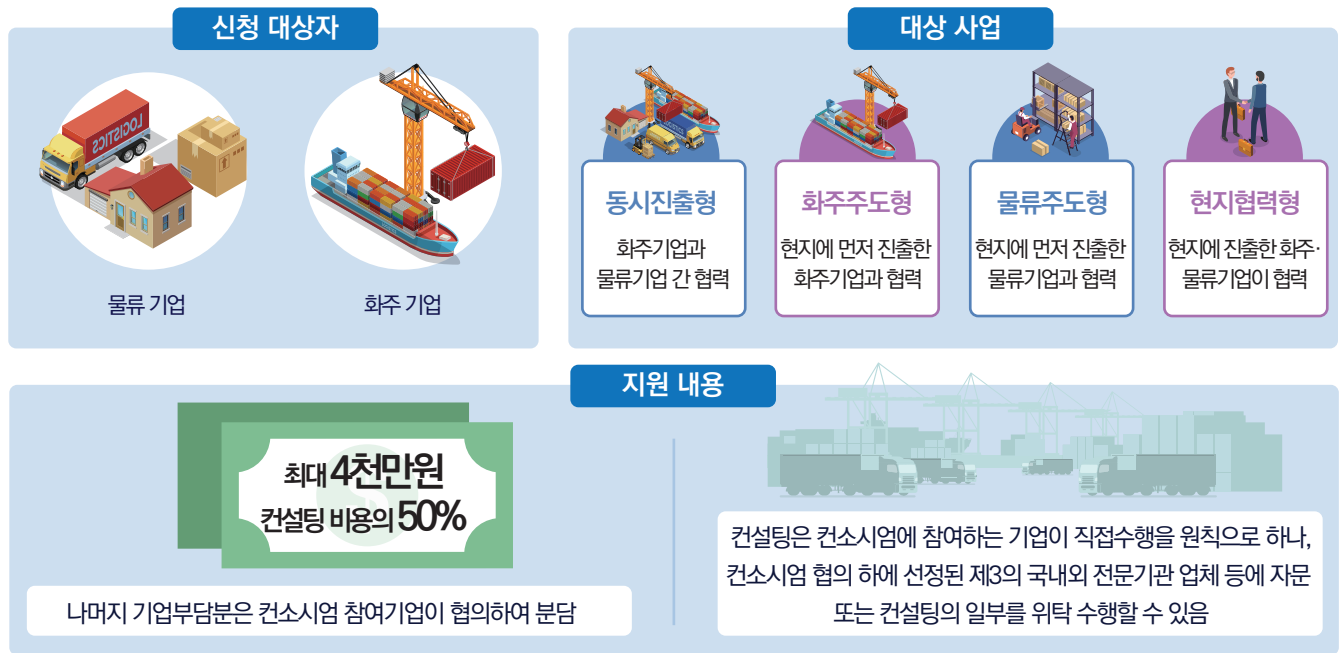


정부의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?

①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

② 화주-물류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



③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

